

전북지역 문화의 재인식

박
진
태



전북도청도서관



EM025991

대구대학교출판부

■ 저자소개 ■

· 박진태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문학박사)
 - 현재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 경상북도 문화재위원
 - 저 서
 - 『탈놀이의 기원과 구조』(새문사, 1990)
 - 『한국민속극연구』(새문사, 1998)
 - 『한국고전가요의 구조와 역사』(형설출판사, 1998)
 - 『동아시아 샤머니즘연극과 탈』(박이정, 1999)
 - 『한국고전희곡의 역사』(민속원, 2001)
 - 『통영오광대』(화산문화, 2001)
 - 『삼국유사의 종합적 연구』(공저, 박이정, 2002)
 - 『전환기의 탈놀이 접근법』(민속원, 2004)
 - 『춘향예술의 양식분화와 세계성』(공저, 박이정, 2004)
 - 『한국고전극연구사 70년』(대구대학교출판부, 2005)
 - 『하회별신굿탈놀이』(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 『한국고전희곡의 확장』(태학사, 2006)
- 이밖에도 국문학, 민속학, 연극학 관련 저서가 다수 있음.

전북지역문화의 재인식

초 판 / 2006년 2월 28일
 저 자 / 박진태
 발행인 / 이용두
 등록 / 경산 제11호
 발행처 / 대구대학교출판부
 주소 /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번지
 전화 / (053) 850-5661~5664
 팩 스 / (053) 850-5669
 인쇄처 / 남경기획
 정 가 / 10,000원
 ISBN 89-7794-365-5-93810

● 전북 지역 세시 풍속의 유형과 생성 배경 55

1. 머리말	55
2. 세시 풍속의 지역적 분포와 유형적 양상	57
3. 설날과 대보름 풍속의 계절적·사회경제적 배경	73
4. 맺음말	76

● 전북지역 민속극에 들어있는 속죄양과 희생양 78

1. 머리말	78
2. 희생양과 속죄양의 차이	79
3. 마을굿의 인형놀이에 들어있는 속죄양	82
4. 농악의 잡색놀이에 들어있는 희생양	88
5. 탈놀이에 들어있는 희생양과 속죄양	102
6. 맺음말	104

● 디딜방아액막이굿의 주술성과 오락화 현상 106

1. 머리말	106
2. 디딜방아액막이굿의 분포와 변이	107
3. 왜 디딜방아인가?	114
4. 왜 '흙친' 디딜방아이어야 하는가?	116
5. 디딜방아를 왜 '거꾸로' 세우는가?	117
6. 디딜방아에 왜 '피 묻은 여자의 속곳'을 씌우는가?	118
7. 다른 여성민속과의 비교	119
8. 다른 지역 탈놀이와의 비교	123
9. 디딜방아액막이굿의 오락화 현상	124
10. 맺음말	127

전북 지역 세시 풍속의 유형과 생성 배경

—정월 풍속을 중심으로—

1. 머리말

우리나라의 세시 풍속이 중국 종림(宗霖; 498-561 또는 502-565)의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처럼 정월부터 12월까지 연중행사와 풍속을 기록하는 세시기 체재로 기록된 것은 유득공(柳得恭; 1749-?)의 『경도잡지』에서 비롯되어 김매순(金邁順; 1776-1840)의 『열양세시기(洙陽歲時記)』(1819)를 거쳐 홍석모(洪錫謨; 1781-1850)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로 이어지면서 집대성되었다. 현대에 와서는 문화재관리국(문화재청의 전신)에서 1969년부터 1981년까지 한국문화인류학회에 위탁하여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경기도, 서울시, 황해·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의 순서로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를 제작할 때 각 도별로 전통적인 세시기의 체재로 풍속지를 작성한 바 있다. 그리고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다시 세시풍속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체재는 같고, 전라북도의 세시 풍속에 관한 조사 보고서는 2003년에 발행되었다.⁸²⁾ 이 자료집은 “현재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70·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2000~2003년까지 현장 조사한”⁸³⁾ 것으로 제

82) 국립문화재연구소, 『전라북도 세시풍속』, 2003.

83) 같은 책, ‘일러두기’

보자들이 “현재 전승하고 있거나 과거 기억 속에 전승되었던 세시 풍속”⁸⁴⁾이므로 조사 보고서에 기록된 세시 풍속의 “역사적 시시 풍속”⁸⁵⁾이므로 조사 보고서에 기록된 세시 풍속의 “역사적 시시 풍속”⁸⁴⁾이므로 조사 보고서에 기록된 세시 풍속의 “역사적 시시 풍속”⁸⁵⁾가 된다. 그리고 시·군과 간대는 193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⁸⁵⁾가 된다. 그리고 시·군과 같은 행정 단위별로 구분하여 각각 3개의 마을을 표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전라북도 전 지역을 포괄하면서 지역간의 균형을 유지한 점에서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조사가 이루어진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전라북도편)⁸⁶⁾의 세시풍속지를 극복하였다. 그리고 역사민속학적 관점에서 문헌자료를 포함시키는 입장을 취하지 않고, 전적으로 현지조사 자료만을 기록한 민속지라는 사실도 이전의 풍속지와 구별된다.

이 글은 『전라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이 차지하는 기록사적 위치와 가치를 주목하면서 정월—설날·정초·대보름(14·15일)·입춘·월중—의 세시 풍속의 종류에 따라 14개 지역(익산시, 군산시, 전주시, 완주군, 김제시, 정읍시, 부안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남원시, 순창군, 고창군)에서 전승되는지 여부를 도표로 작성한 다음 정월 세시 풍속의 유형을 행위 전승의 관점에서 분류하고, 14개 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전승되는 세시 풍속에 국한시켜 계절적·사회경제적 생성 요인 내지는 실용적 동기와 배경을 분석하려고 한다.⁸⁷⁾ 김명자(金明子)가 세시 풍

84) 같은 책, 같은 곳.

85) 같은 책, 같은 곳.

86)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문화재관리국, 1971, 471-494쪽에 이두현(李杜鉉)이 조사한 ‘세시풍속지’가 수록되어 있다.

87) 이러한 접근법은 김열규, 고려사회의 민속과 무속(『한국신화와 무속연구』, 일조각, 1977)과 김태곤, 신년제의 실상(《월간문화재》1·2합병호, 월간문화재사, 1982)와 김명자, 세시풍속의 순환의미(《한국민속학》제16집, 민속학회, 1983)에서 보인 제의적·신화적·주술적 측면에 대해 관심을 보인 것과는 대조된다.

속의 연구사를 검토하고, 연구 과제로 역법(曆法)과의 관계, 사적 체계화, 특정 시기의 양상, 생업과의 관련성, 비교 연구, 미시적 연구, 자료의 분류 등을 제시한 바 있는데⁸⁸⁾, 이번의 작업은 자료의 분류와 미시적 연구에 해당하는 셈이다.

2. 세시 풍속의 지역적 분포와 유형적 양상

『전라북도 세시풍속』에서는 정월의 세시 풍속을 설날, 정초, 14일, 15일, 입춘, 월중으로 구분하여 일람표를 작성하였으나⁸⁹⁾, 여기서는 세시 풍속의 종류에 따른 지역적 분포 양상을 도표로 작성하기로 한다.

88) 김명자, 세시풍속의 연구, 『한국민속연구사』(최인학박사화갑기념논총), 지식산업사, 1994, 368-171쪽 참조.

89) 일람표에서는 세시풍속, 놀이, 시식(時食)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세시 놀이와 세시음식을 세시풍속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는 일단 유예하고 좁은 의미의 세시풍속의 자료만 고찰의 대상으로 삼는다.

(1) 설날의 세시풍속 <도표 1>

종류 \ 지명	익산	군산	전주	완주	김제	정읍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남원	순창	고창	빈도
차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4
성묘			0	0	0		0	0	0	0	0	0	0	0	11
세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4
설빔 입히기	0						0	0	0	0		0			6
토정비결보기		0					0								2
까치소리로 점치기									0						1
날씨 점치기	0							0	0	0					4
손님 점치기														0	1
청참			0										0		2
유모일, 무모일			0												1
당산제							0		0			0			3
산신제									0						1
성주상 차리기			0	0								0			3
시제		0													1
까마귀 · 까치 밥주기				0				0		0					3
드는 환갑 쇠기			0									0		0	3
대문 일찍 열기	0							0	0	0					4
설 들어와서 쇠기	0														1
복조리 걸기	0						0				0	0		0	5
복주머니 채우기			0											0	2
댓볼 피우기											0				1
여자 출입 금기	0		0	0	0	0		0		0		0			8
빨래줄 걷기						0									1
용날 물 긴지 않기								0							1

(2) 정초의 세시풍속 I <도표 2-1>

종류 \ 지명	익신	군신	전주	완주	김제	정읍	부인	진인	무주	장수	임실	남원	순창	고창	빈도
모듬제사														0	1
안택	0	0	0	0	0	0		0	0	0	0	0	0	0	13
초사훈날 고사	0	0			0		0				0		0		7
치성드리기(7일,14일)									0					0	1
성주상 차리기													0		1
칠성 공드리기								0		0					2
외양간 고사														0	1
마당밧이	0	0	0	0			0	0	0	0	0	0			10
당산제			0	0		0		0	0	0	0				7
산제	0			0					0						3
거리제(길상제)			0	0		0		0			0			0	6
김대제									0						1
동구(정자)나무제				0						0					2
팔죽제										0					1
기맞이, 기세배		0													1
기고사								0							1
용왕제						0		0							2
승도 법고				0											1
천제										0					1
불공드리기										0					1
당골 세배 받기	0														1
세화					0										1
복조리 걸기	0	0	0	0	0	0	0	0	0	0		0	0	0	13
미역 집어가기						0									1
다리밧기				0											1
우물물 먼저 걷기				0											1
소코뚜레 걸기				0											1
머슴들이기										0					1
키 큰 사람 부르기														0	1
액막이		0				0	0							0	4
허새비 버리기		0		0	0	0						0	0		6
디딜방아 훑치기			0	0				0	0	0		0			6
부적 붙이기			0	0	0								0		4
삼재 막이			0	0	0	0	0	0	0		0	0	0	0	11
노두 놓기			0		0	0						0		0	5
엄나무걸기	0		0	0		0		0	0	0		0		0	9
뱀방 붙이기		0	0		0	0					0		0	0	7
불 피우기					0										1
머리카락 태우기		0			0										2

(3) 정초의 세시풍속 II <도표 2-2>

종류 \ 지명	익신	군신	전주	완주	김제	정읍	부인	진안	무주	장수	임실	남원	순창	고창	반도
토정비결	0		0	0		0	0	0	0	0	0	0	0	0	12
신년운세 보기	0							0	0	0				0	4
날씨 보기	0		0			0		0		0		0			5
장사꾼 보기	0		0			0								0	7
손님 점치기			0			0					0				2
챙이로 농사 점치기									0						1
좀생이별 보기					0				0						2
천둥소리 듣기	0								0						2
점 보러 가기														0	1
바느질 하지 않기	0	0													2
빨래하지 않기	0														1
문(구멍)바르지 않기	0						0	0							3
지붕 이지 않기							0								1
돈·곡식빌려주지 않기									0						1
여자출입 금기				0					0						2
바깥출입 금기										0					1
쓰레기 버리지 않기	0														1
6일에 바느질 않기							0								1
7일남재워주지 않기							0								1
8일에 상차리기							0				0				2
쥐날 주머니 만들기	0										0		0	0	4
쥐날 논두렁 불놓기		0	0			0									3
쥐날 콩 볶기											0				1
쥐날 불(일찍)켜지 않기	0										0			0	3
쥐날 바느질하지 않기							0								1
쥐날 칼질하지 않기						0									1
쥐날 일하지 않기														0	1
소날 소밥주기											0				1
소날 김치담그지 않기	0														1
소날 연장만지지 않기						0	0				0			0	4
호랑이날 두부 먹기											0				1
호랑이날 이사 가기														0	1
호랑이날 결혼하기														0	1
호랑이날 근신하기											0				1
호랑이날 일하지 않기						0									1
호랑이날 산에 가지 않기														0	1
토끼날 여자절가지 않기									0						1
토끼날 여자출입금기	0	0													2
토끼날 지붕이지 않기														0	1

(4) 정초의 세시풍속 III <도표 2-3>

종류 \ 지명	익신	군신	전주	완주	김제	정읍	부인	진인	무주	장수	임실	남원	순창	고창	빈도
용날 용알 뜨기		0									0				2
용날 물 긴지 않기	0	0		0		0	0				0		0	0	8
용날 일하지 않기														0	1
용날 머리빗지않기											0			0	2
용날 머리감지않기														0	1
뱀날 머리빗지않기							0								1
뱀날 머리감지않기	0														1
뱀날 화재막기			0					0							2
뱀날 장담그지않기			0												1
뱀날 물긴지않기		0				0	0	0					0	0	6
뱀날 일하지않기						0								0	2
뱀날 빨래하지않기														0	1
뱀날 들깨대태우기														0	1
말(소)날 장담그기	0	0	0	0	0	0		0	0	0	0	0	0	0	13
말날 머리빗기						0									1
신일남자먼저대문열기							0								1
신일 바느질하지않기							0								1
원송이날 일하지않기														0	1
닭날 바느질하지않기							0						0		2
닭날 일하지 않기														0	1
닭날 빗질하지 않기														0	1
개날 개 사지 않기														0	1
돼지날바느질하지않기						0					0		0	0	4
7일(사람날)일하지않기								0	0						2
7일(사람날) 절에 가기									0						1
7일(사람날) 떡국 먹기										0					1

(5) 14일의 세시풍속 I <도표 3-1>

종류\지명	익산	군산	전주	완주	김제	정읍	부인	진인	무주	장수	임실	남원	순창	고창	빈도
차례			0												1
당산제			0				0					0		0	4
거리제	0			0				0	0	0					5
기고사	0								0						1
산신제								0							1
큰산제								0							1
탑산제									0						1
하당제									0	0					1
용왕먹이기, 용왕제			0	0											4
동구나무제				0											1
마당짚기							0						0		2
샘고사													0		1
안택													0		1
오곡밥	0		0	0		0		0	0	0		0		0	9
묵은 나물 먹기	0		0	0		0			0	0		0		0	8
아홉 번 행동하기	0							0	0	0				0	5
샘물 훑치기			0												1
김쌈				0										0	2
설떡 먹기	0														1
유지뱅이 세우기	0		0												2
오곡밥 얻어먹기						0		0	0	0				0	5
짚신·파리·수세미								0	0	0					3
복조리걸기										0			0		2
노적 쌓기													0		1
귀밝이술 마시기										0					1
마당 일찍 쓸기									0						1
저녁밥 일찍 먹기										0					1
싸리나무 불때기				0					0						2
진나물 먹기														0	1
논에 거름 넣기										0					1
방생										0					1
양말 신고 자기									0						2
쓰레기 태우기	0		0												3
종이웃 태우기	0								0	0					4
땃불 피우기	0		0				0						0		2
논밭둑 태우기	0						0								2
밤새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4
불 밝히기	0							0	0	0					4
다래기 빠뜨리기		0				0						0			3

(6) 14일의 세시풍속 II <도표 3-2>

종류 \ 지명	익신	군신	전주	완주	김제	정읍	부인	진안	무주	장수	임실	남원	순창	고창	빈도
노두 놓기	0	0	0	0		0		0	0	0	0	0	0		11
부럼 깨기	0									0	0				3
액막이		0								0					2
화재막이	0		0					0							3
두더지 방아 쪼기	0														1
집안 청소하기	0														1
해달 쫓기	0														1
허새비 버리기			0	0	0			0	0		0		0		7
채 달아두기									0						1
버선 쫓기									0	0					2
덧밥 주기						0								0	2
액연 날리기							0								1
지붕에 깃대 쫓기								0							1
보름 나가서 쇠기	0							0	0	0					4
팔랑개비 쫓기	0								0	0					3
삼재막이										0					1
뱀 쫓기											0				1
소밥주기			0	0											2
식구불 켜기	0		0	0				0	0	0		0			7
좀생이별보기	0														1
달 점치기					0					0					2
보리뿌리 점치기														0	1
키 얹어두기								0	0						2
칼질 하지 않기								0							1
절구질 하지 않기								0	0						2
매운 음식 안 먹기														0	1

(9) 15일의 세시풍속Ⅲ <도표 4-3>

종류\지역	익산	군산	전주	완주	김제	정읍	부인	진안	무주	장수	임실	남원	순창	고창	병도
잡곡밥 뿌리기							0								1
물외밥 주기							0						0		1
도깨비불 보기												0			1
뱀입춘(뱀방)								0							1
과일나무 엮포주기														0	1
팔 던지기									0						1
노래기 쫓기									0						1
불싸움									0	0				0	4
날씨 점치기	0														
달 점치기		0	0	0	0	0	0	0	0	0	0	0	0	0	13
소 밥주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4
손님 점치기						0	0								2
쌀 점치기					0										1
사발 점치기					0										1
닭울음 점치기					0										1
콩불이						0									1
삼농사 점치기								0	0	0		0			4
식구불 켜기												0			1
빗자루질 하지 않기	0		0					0				0			4
머리 빗지 않기			0			0								0	3
빨래 널지 않기			0			0									1
아침에 음식 먹지 않기									0	0					2
맨발로 다니지 않기								0							1
남의집 일찍 가지 않기								0							1
칼질 하지 않기									0						1
마당 쓸지 않기									0						2
물 긴지 않기									0	0					1
여자출입금지									0						

(10) 입춘과 월중의 세시풍속 <도표 5>

종류\지역	익신	군신	전주	완주	김제	정읍	부인	진안	무주	장수	임실	남원	순창	고창	빈도
입춘축 붙이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4
차례	0	0													2
보리밭기										0					1
입춘 불공드리기										0					1
뱀방 붙이기		0			0									0	3
보리뿌리(풀) 점치기		0	0	0	0	0	0	0	0		0	0	0	0	12
날씨 점치기			0									0			
당산나무앞으로점치기							0								
<월중>															
시제		0													1
개구리알 먹기		0													1
달맞이												0			1
마당밭이												0	0		2
디딜방아 훑치기										0					1
집안청소하기											0				1
달집태우기												0			1
날씨 점치기										0					1
천둥소리 듣기									0						1
달 점치기												0			1
문 바르지 않기 문구멍 막지 않기	0	0	0	0						0			0	0	7

세시 풍속은 전승물의 종류에 따라 언어 전승, 물질 전승, 행위 전승으로 구성되는데, 정월의 세시 풍속을 행위 전승의 관점에서 조상 숭배 행위의 세시 풍속, 수호신 숭배 행위의 세시 풍속, 기복(祈福) 행위의 세시 풍속, 벽사(辟邪) 행위의 세시 풍속, 점복(占卜) 행위의 세시 풍속, 금기(禁忌) 행위의 세시 풍속 등 6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⁹⁰⁾ <도표 1>에 나타난 설날의 세시 풍속부터

⁹⁰⁾ 세시 풍속의 분류법에는 ① 계절에 따른 분류, ② 농경의례로 보는

유형적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설날의 세시 풍속 중에서 차례, 세배는 조상 숭배 행위이며, 토종비결 보기, 까치소리로 점치기, 날시 점치기, 손님 점치기, 청참, 유모일과 무모일은 점복 행위이며, 단산제, 산신제, 성주상 차리기, 까마귀와 까치 밥주기는 마을이나 집의 수호신을 숭배하는 행위이며, 설빔 입히기, 대문 일찍 열기, 설 들어와 쇠기, 복조리 걸기, 복주머니 채우기는 복을 기원하는 행위이고, 땃불 피우기는 벽사 행위이며, 용날 물 긴지 앓기, 여자 출입 금기, 드는 환갑 쇠기, 빨래줄 걷기는 금기와 관련된 행위들이다.

정초의 세시 풍속의 종류와 지역적 분포 양상을 도표로 작성하여 제시하면 <도표 2-1·2·3>과 같다. 모든 제사는 조상신을 숭배하는 행위이며, 마당밭이와 치성드리기, 초사흘날 고사는 수호신(가신:家臣)을 숭배하는 행위이고, 안택은 조상과 수호신(가신)을 함께 위하는 행위이다. 또 성주상 차리기, 칠성공드리기, 외양간 고사는 집의 수호신(가신)을 숭배하는 행위이고, 당산제, 산제, 짐대제, 동구(정자)나무제, 팔죽제, 기맞이, 기세배, 기고사, 용왕제는 마을공동체의 수호신(동신:洞神)을 숭배하는 행위이며, 승도 법

분류, ③ 내용 중심의 분류 세 가지가 있는데(김명자, 세시풍속 자료의 분류 시고, 《한국민속학》 제19집, 민속학회, 1986, 144-150쪽), 첫 번째 경우로는 『경도잡지』, 『열양세시기』, 『동국세시기』에서는 월별로, 장주근의 『한국의 세시풍속과 민속놀이』(대한기독교서회, 1974)와 임동권의 『한국세시풍속연구』(집문당, 1985)와 이두현 외 2인의 『한국민속학개설』(학연사, 1983), 그리고 『한국민속대관』 제4권(세시풍속·전승놀이)(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에서는 4계절로 구분하였다. 두 번째 경우로는 김택규의 『한국농경세시의 연구』(일조각, 1985)에서 축원의 세시, 생장의 세시, 수확의 세시로 구분하였고, 세 번째 경우로는 김명자, 앞의 글, 149-150쪽에서 세시풍속은 '복을 얻는 다양한 방법'이라는 인식 아래 먹기, 제사지내기, 놀기, 꺼리기, 생활 대책 세우기, 기원하기, 입기, 점치기, 방법(방술)하기로 9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고, 불공드리기, 천제는 절에서 수호신(부처, 천신)을 숭배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당골 세배 받기, 세화, 복조리 걸기, 미역 집어가기, 다리 밟기, 우물물 먼저 걷기, 소코뚜레 걸기, 머슴 들이기, 키 큰 사람 부르기, 7일에 절에 가기, 7일에 떡국 먹기는 복을 기원하는 행위이고, 거리제, 액막이, 허새비 버리기, 디딜방아 훑치기, 부적 붙이기, 삼재 막이, 노두 놓기, 엄나무 걸기, 뱀방 붙이기, 불 피우기, 머리카락 태우기는 재액이나 악귀를 물리는 벽사 행위이다. 또한 토정비결, 신년 운세 보기, 날씨 보기, 장사꾼 보기, 손님 점치기, 창이로 농사 점치기, 종생이별 보기, 천둥소리 듣기, 점 보러가기는 점복 행위이며, 바느질 하지 않기, 바느질 하지 않기, 빨래하지 않기, 문(구멍)바르지 않기, 지붕 이지 않기, 돈·곡식 빌려주지 않기, 여자 출입 금기, 바깥출입 금기, 쓰레기 버리지 않기, 6일에 바느질 않기, 7일 남 채워주지 않기, 7일(사람날) 일하지 않기, 7일(사람날) 절에 가기, 7일(사람날) 떡국 먹기, 8일에 상차리기, 쥐날 주머니 만들기, 쥐날 콩 볶기, 쥐날 불(일찍)켜지 않기, 쥐날 바느질하지 않기, 쥐날 칼질하지 않기, 쥐날 일하지 않기, 소날 소밥주기, 소날 김치 담그지 않기, 소날 연장 만지지 않기, 호랑이날 두부 먹기, 호랑이날 이사 가기, 호랑이날 결혼하기, 호랑이날 근신하기, 호랑이날 일하지 않기, 호랑이날 산에 가지 않기, 토끼날 여자 절 가지 않기, 토끼날 여자 출입 금기, 토끼날 지붕 이지 않기, 용날 용알 뜨기, 용날 물 걷지 않기, 용날 일하지 않기, 용날 머리 빗지 않기, 용날 머리 감지 않기, 뱀날 머리 빗지 않기, 뱀날 머리 감지 않기, 뱀날 화재 막기, 뱀날 장 담그지 않기, 뱀날 물 걷지 않기, 뱀날 일하지 않기, 뱀날 빨래하지 않기, 뱀날 들깨대 태우기, 말(소)날 장 담그기, 말날 머리 빗기, 신일(원숭이날) 남자 먼저 대문열기, 신일 바느질하지 않기, 원숭이날 일

하지 않기, 닭날 바느질하지 않기, 닭날 일하지 않기, 닭날 빗질하지 않기, 개날 개 사지 않기, 돼지날 바느질하지 않기 등등은 금기 행위들이다.

14일의 세시 풍속의 종류와 지역적 분포 양상을 도표로 작성하여 제시하면 <도표 3-1·2>와 같다. 차례는 조상을 숭배하는 행위이고, 당산제, 기고사, 산신제, 큰 산제, 탐산제, 하당제, 용왕먹이기, 용왕제, 동구나무제, 샘고사는 마을공동체의 수호신(동신)을 숭배하는 행위이고, 마당밭이는 집의 수호신(가신)을, 안택은 조상신과 가신을 숭배하는 행위이다. 오곡밥, 묵은 나물 먹기, 아홉 번 행동하기, 소밥주기, 샘물 훔치기, 김쌈, 설떡 먹기, 유지뱅이 세우기, 오곡밥 얻어먹기, 쫄신·파리·수세미 만들기, 복조리걸기, 노력 쌓기, 귀밝이술 마시기, 마당 일찍 쓸기, 저녁밥 일찍 먹기, 싸리나무 불 때기, 진 나물 먹기, 눈에 거름 넣기, 방생 등은 복을 기원하는 행위이고, 거리제, 쓰레기 태우기, 종이웃 태우기, 땃불 피우기, 논밭뚝 태우기, 밤새기, 불 밝히기, 다래기 빠뜨리기, 노두 놓기, 부럼 깨기, 액막이, 화재막이, 두더지 방아 쪼기, 집안 청소하기, 해달 꽃기, 허새비 버리기, 체 달아두기, 버선 꽃기, 텃밥 주기, 액연 날리기, 지붕에 깃대 꽃기, 보름 나가서 쇠기, 팔랑개비 꽃기, 양말 신고 자기, 삼재막이, 뱀 쫓기는 재난이나 악귀를 물리는 행위이며, 식구 불 켜기, 좀생이벌 보기, 달 점치기, 보리뿌리 점치기, 키 엮어두기, 칼질 하지 않기, 절구질 하지 않기, 매운 음식 안 먹기 등은 금기 행위이다.

15일의 세시 풍속의 종류와 지역적 분포 양상을 도표로 작성하여 제시하면 <4-1·2·3>과 같다. 차례는 조상신을 숭배하는 행위이고, 안택은 조상신과 가신을 함께 숭배하는 행위이며, 기세배, 기싸움, 마당밭이(쪼기), 동제, 짐대제, 당산제, 달맞이, 용왕제, 용왕먹이기, 칠성 공들이기, 까치밥 주기, 까마귀밥 주기는 수호신을

송배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오곡밥 먹기, 오곡밥 얻어먹기, 보름밥 일찍 먹기, 찰밥 일찍 짓기, 찰밥 먹기, 찰밥 얻어먹기, 아홉 번 행동하기, 아홉 가지 나물 먹기, 나물 많이 먹지 않기, 취나물 먹기, 두부 먹기, 무(국) 먹기, 콩나물(국) 먹기, 김쌈(노적쌈,보쌈)먹기, 생채, 고사리, 설떡 먹기, 찬 음식 먹기, 찬 물 마시기, 찬물로 세수하기, 찬물 마시지 않기, 젓가락으로 밥 먹기, 손으로 음식 먹기, 술방울 던지기, 귀밝이술 마시기, 복조리 걸기, 우물 먼저 긴기, 용알 뜨기, 다리 밟기, 노적봉 쌓기, 유지지 걸기, 벚가릿대 세우기, 과일나무 시집보내기, 키 큰 사람 부르기, 곡식종자 걸어두기, 샘물 훔치기, 쌀뜨물로 세수하기, 대문 일찍 열기, 소 고뽕이 드리기, 소줄 드리기, 시부모 대접하기 등은 복을 기원하는 행위이고, 개 보름쇠기(굶기기), 땃불 피우기, 부럼 깨기, 더위 팔기, 화재 막이, 삼재 막이, 액 막이, 액연 날리기, 뱀 쫓기, 쓰레기 태우기, 엄나무 걸기, 달집 태우기, 거리제, 잡신에게 음식 놓기, 지신불 태우기, 노두 놓기, 허새비 버리기, 모깃불 피우기, 두더지 방아 쪼기, 새 쫓기, 디덜방아 훔치기, 보름 나가서 쇠기, 종이웃(등걸이)태우기, 머리카락 태우기, 잡곡밥 뿌리기, 물외밥 주기, 도깨비불 보기, 뱀입춘(뱀방), 과일나무 엄포 주기, 팔 던지기, 노래기 쫓기, 불 싸움 등은 액땀하고 재난이나 악귀를 물리는 행위이다.

그리고 날씨 점치기, 달 점치기, 소 밥 주기, 손님 점치기, 쌀 점치기, 사발 점치기, 닭울음 점치기, 콩 불이, 삼 농사 점치기, 식구 불 켜기는 점복 행위이고, 매운 음식 먹지 않기, 빗자루질 하지 않기, 머리 빗지 않기, 빨래 널지 않기, 아침에 음식 먹지 않기, 맨발로 다니지 않기, 남의 집 일찍 가지 않기, 칼질 하지 않기, 마당 쓸지 않기, 물 긴지 않기, 여자 출입 금기는 금기 행위이다.

입춘과 월중에도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세시 풍속이 행하여진

바, 먼저 입춘의 세시 풍속을 보면, 차례는 조상을 숭배하는 행위이고, 입춘 불공드리기는 수호신을 숭배하는 행위이며, 입춘축 붙이기, 보리밭기는 복을 기원하는 행위이고, 뱀방 붙이기는 벽사 행위이고, 보리 점치기, 날씨 점치기, 당산나뭇잎으로 점치기는 점복 행위이며, 수호신을 숭배하는 행위와 금기 행위는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월중의 세시 풍속을 보면, 시제는 조상신을 숭배하는 행위이고, 달맞이, 마당밭이는 수호신을 숭배하는 행위이며, 개구리알 먹기는 기복 행위이고, 디딜방아 훑치기, 집안 청소하기, 달집 태우기, 날씨 점치기, 천둥소리 듣기, 달 점치기는 점복 행위이며, 문 바르지 않기, 문구멍 막지 않기 금기 행위이다.

이상에서 시기별로 세시 풍속의 유형적 양상을 개괄적으로 살펴봐왔는데,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은 설날, 정초, 입춘, 대보름(14일과 15일), 월중의 시기에 따라 대체로 6개 유형이 고르게 나타나지만, 종류의 수에는 설날이 24종, 정초가 105종, 14일이 65종, 15일이 106종, 입춘은 8종, 월중이 11종으로 그 차이가 극심하다. 특히 설날과 대보름은 각각 24종과 171종으로 대보름이 8배나 된다. 그리하여 설날(24종)→정초(105종)→대보름(171종)의 순서로 세시 풍속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인간의 활동의 양과 폭이 증대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설날에서 대보름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인간의 활동이 위축된 상태에서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⁹¹⁾

다음으로 정초에 금기 행위가 설날이나 대보름에 비해 현저하게 집중되어 있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12지일마다 금기

91) 설 민속과 보름 민속의 관계에 대해서 임재해, 설과 보름 민속의 대립적 성격과 유기적 상관성, 《한국민속학》 제19집, 민속학회, 1986, 295-319쪽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초엿새, 초이레, 초여드렛날에도 특정한 금기가 요구되어, 정초는 하루에도 빠지 않고 금기로 인간의 행위가 제한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금기의 내용을 보면, 바느질 하지 않기, 김치 담그지 않기, 연장 만지지 않기, 지붕 이지 않기, 물 길지 않기, 머리 감지 않기, 빨래하지 않기 등등 ‘일을 하지 말라’이다. 다시 말해서 ‘일을 하지 말고 쉬어라’는 뜻이다. 현대 사회는 ‘주중-일’, ‘주말-휴식’을 반복하지만, 전통 사회에서는 ‘평상시-일’, ‘명절-휴식’의 리듬이었는데, 정초에 유독 ‘휴식’을 강조한 것은 묵은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됨과 동시에 겨울이 끝나가고 농사철이 시작되는 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게 하려는 의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지역적 분포 양상을 보면, 어떤 풍속은 전라북도 전 지역에서 전승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어떤 풍속은 일부 특정 지역에서만 전승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3. 설날과 대보름 풍속의 계절적 · 사회경제적 배경

정월은 태음력으로는 묵은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며, 계절적으로는 동장군의 위세가 한 풀 꺾이면서 봄기운이 대지에 번지는 환절기이며, 농사력으로는 농한기가 끝나가고 농번기로 접어드는 전환기이고, 식량 면에서는 주곡(쌀)과 가을 김장 거리가 동이 나고 봄나물의 채취와 햇보리의 수확이 아직은 요원한 시기이다. 이러한 세시적 · 계절적 위치가 설날과 정초, 입춘과 대보름의 세시 풍속의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를 추찰함

에 있어서 논의의 효율성을 위하여 전라북도 전 지역에서 전승되는 세시 풍속, 곧 빈도수에서 14개로 나타나는 세시 풍속에 국한시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설날의 대표적인 세시 풍속은 차례와 세배이며, 14일의 대표적인 세시 풍속은 밤새기이고, 15일의 대표적인 세시 풍속은 오곡밥 얻어먹기, 두부 먹기, 귀밝이술 마시기, 부럼 깨기, 더위 팔기, 소밥 주기 등이다. 그리고 입춘의 대표적인 세시 풍속은 입춘죽 붙이기이다.

설날의 차례는 조상 숭배 의례로 이것은 자손과 조상의 심리적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통합 의례이고, 세배 또한 효 사상과 경노 사상에 토대를 두고 부모와 자식을 통합시키는 의례적 행위이다. 이 같이 차례와 세배는 혈연 집단을 결속시키는 통합 의례인 것이다.

14일의 밤새기는 섣달 그믐밤의 수세(守歲)와 마찬가지로 뜬 눈으로 밤새기를 하면서 만일 잠을 자면 눈썹이 센다고 하고, 혹 잠이 든 아이는 눈썹에 밀가루를 발라 놀린다. 그런데 익산 지방에서는 섣달 그믐밤 잔이 들면 ‘갱갱할머니가 내려와서 잡아가거나, 눈썹을 빼간다’고 하고⁹²⁾, 남원 지방과 무주 지방에서는 굼벵이가 된다고 하며⁹³⁾, 순창 지방에서는 ‘눈이 빨개진다’고 한다.⁹⁴⁾ 14일 밤에도 잠이 들면 남원 지방에서는 굼벵이가 된다고 하고⁹⁵⁾, 익산 지방에서는 ‘갱갱할머니가 눈썹을 빼가거나, 몸의 무게를 달아 보아 해를 준다’고 믿는다.⁹⁶⁾ 눈썹이 센다는 것은 ‘늙음’을 의미하

92) 『전라북도 세시풍속』, 179쪽 참조.

93) 같은 책, 85쪽과 357쪽 참조.

94) 같은 책, 429쪽 참조.

95) 같은 책, 91쪽 참조.

96) 같은 책, 167쪽 참조.

므로 선달 그믐밤이나 정월 14일 밤에 잠을 자면 초고속으로 나이를 먹게 된다는 뜻이 되어 선달 그믐밤을 연장시켜 설날이 오지 않게 하고, 14일밤을 연장시켜 보름날이 오지 않게 하려는 시간 연장 의식을 엮을 수 있다. 한편 굶뱅이가 된다는 것은 '게으르다'는 뜻인데, 선달 그믐밤과 정월 14일에 밤새기를 하여 눈을 뜬 채로 설날과 보름날을 맞이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기상한 셈이 되므로 '최고로 부지런한 사람'이고, 잠이 든 사람은 굶뱅이 같은 게으름뱅이라는 조롱을 받는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해'가 바뀌고 '달'이 달라지는 중대한 시점에 공동체의安危와 직결되는 '해'와 '달'을 잃지 않도록 공동으로 불침번을 서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시킬 목적으로 고안한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정월 보름날에 오곡밥 먹기를 하는 것은 주곡(主穀)인 쌀이 떨어질 시기이므로 좁쌀, 수수, 기장, 콩, 팥과 같은 잡곡으로 밥을 지어 먹거나 맵쌀이 아닌 찰쌀로 밥을 지어 먹도록 유도함으로써 식량 자원의 균형적 소비를 도모하려는 목적성을 띤 세시 풍속이고, 두부 먹기는 교도소에 복역한 사람이 출감하였을 때 맨 처음으로 하는 일이 두부를 먹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일조량이 부족한 겨울철에 영양분을 공급하려는 의도에 연유한 세시 풍속이며, 취나물 먹기나 콩나물 먹기나 무 먹기도 작년 가을에 담근 김장 김치가 동이 날 때쯤 해서 마른 나물이나 실내에서 재배한 채소나 땅속에 갈무리하였던 반찬거리를 먹도록 종용하는 세시 풍속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15일의 귀밝이술 마시기, 부럼 깨기는 귀와 이빨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행위이고, 더위 팔기는 여름철 건강 관리 의지를 시험하려는 세시 풍속이다. 그런가 하면 귀밝이술을 통해서 술이 말문을 열게 하여 정보의 유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

97) '가' 발음은 청력(聽力)이 좋다는 뜻만이 아니라 청각을 신중하게, 다량으로 입수한다는 뜻도 있다.

이 큰 세시 풍속에 대한 선행 연구를 충분히 검토한 것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서둘러 집필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지역의 세시 풍속의 분포도를 작성하여 지역적인 차이와 특성을 지닌 보편적인 세시 풍속과 지역적 편중성을 지닌 특수한 세시 풍속으로 구분할 수 있는 통계적 자료 내지 객관적 근거를

4. 맺음말

수단으로 기어오르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회를 통제하는 다시 말해서 세시 풍속이 인간을 자연의 순환 질서에 적응시키고, 안전한 생활 관습이 선민과 대보들의 대표적 세시 풍속인 것이다. 견하고, 풍사철에 대비해야 하는 세시적·계절적 필요성에서 고하여 식량 소비 패턴을 개선하고, 사람과 가족의 건강 상태를 점 요건대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속시키고, 근검 절약 정신을 고취 할 수 있다는 경험적 지식을 환기시키는 세시 풍속이다. 는 여름이 와야 농작물의 재배가 가능하고 풍요와 다산을 성취 의미하듯이 음기가 웅만한 겨울이 지나가고 양기가 웅만한 봄(또 봄이기는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의 대련(對聯)이 면 일을 해야 하는 소의 입맛을 거진하는 세시 풍속이고, 입춘죽 료으로 밥과 나물을 주어 풍흉을 점치는 소밥 주기는 봄이 되 비마와 싸워 이기려는 의지를 결집을 예방하고, 더위 판기를 통해서는 (蠶果)를 먹음으로써 영양 결핍을 예방하고, 더위 판기를 통해서는 게 하고97, 부름 깨기를 통해서는 생과(生果)가 없는 시기에 전과

제시할 수 있었고, 세시 풍속이 1년을 시간 단위로 하여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전승 문화라는 점을 고려하여 행위 전승의 측면에서 조상신 숭배 행위의 세시 풍속, 수호신(가신, 동신, 불교신) 숭배 행위의 세시 풍속, 기복 행위의 세시 풍속, 벽사 행위의 세시 풍속, 점복 행위의 세시 풍속, 금기 행위의 세시 풍속으로 분류하여 세시 풍속의 자료적 실상에 부합한 새로운 자료 분류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세시 풍속의 제의적, 주술적 유래와 기능보다는 계절적, 사회경제적, 실용적 동기와 배경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점에서 연구의 성과와 연구사적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 방법은 다른 시절의 세시 풍속으로 확대 적용시킬 수 있고, 또 지역적으로는 다른 시·도나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글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 곧 전북 지역의 특징을 부각시키지 못한 점, 정월의 세시 풍속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신년 제의적 성격을 조명하지 못한 점, 전승권을 세분화하여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지리적, 기후적 요인을 해명하지 못한 점, 20세기까지만 해도 전승되었으나 지금은 전승이 중단된 세시 풍속과 현재도 전승력을 유지하고 있는 세시 풍속을 대비하여 전북 지역 근현대사 속에서 풍속사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지 못한 점 등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른다.